

## 예술가로서의 李昉應의 생애와 思想

김 정 숙\*

I. 머리말

II. 生涯

III. 詞句印을 통해 본 學藝 思想과 人生觀

IV. 맺음말

### I. 머리말

동서고금을 통해 수많은 작가와 작품이 존재하지만 감동을 주는 작품을 만나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 李昉應(1820~1898)의 墨蘭畵를 보았을 때 감동 이상의 전율을 느꼈었고, 그것은 잊혀지지 않는 강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이렇듯 그의 작품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로서의 연구 대상이 아니라, 현재의 시점에서도 여전히 氣韻生動하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직접적인 동기가 된다.

이하응은 朝鮮末期 역사적 전환기에 집권하여 다난한 삶을 살았던 정치가로 알려진 인물이다. 동시에 그는 정치적 시련기를 맞을 때마다 난을 치며 삶의 걱정을 예술로 승화시켰던 예술가이기도 하다. 일찌기 그는 秋史 金正喜(1786~1856) 문하에서 묵란과 서예를 익히기 시작하여 수준 높은 화격으로 최고의 명성을 누렸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 회화사상 묵란화 분야에서 가장 뚜렷한 자취를 남겼다. 그럼에도 그의 생애에 대한 연구는 정치적 이력에 집중되어 있을 뿐,<sup>1)</sup> 예술 활동에 초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 미술사학

1) 李昉應의 인물됨과 정치적 성격에 대한 최초의 저작은 1886년에 출간된 朴齊炯의 『近世朝鮮政鑑』

점을 맞추어 조명된 경우는 드물다.<sup>2)</sup>

이 글에서는 이하응의 창작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藝術家로서의 그의 삶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家系와 人品 등 그의 인물됨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고, 이어서 예술 창작의 근원이 되는 그의 學藝 思想과 人生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런데 이하응은 文集類의 저서를 남기지 않았고, 지금까지 전해지는 문헌 자료에서도 思想이나 藝術論에 관한 언급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그의 사상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를 전제로 하고, 이 글에서는 그의 그림에 찍힌 詞句印의 내용 분석을 통해

(上)이다. 개화파의 시각으로 쓴 이 책은 이하응이라는 인물 분석과 정치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저자 불명의 『興宣大院君略傳(1888)』은 이하응의 보수적인 전제정치를 부각시켜 다소 부정적인 시각에서 평했다. 그러나 때로는 中道的으로, 심지어는 그의 결단력을 다소 擁護的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식민지 시대에 출간된 菊池謙讓의 『大院君傳(明治43)』은 이하응에 대해 조선을 개혁시키려는 시대적인 영웅으로 기술했지만, 개인적 차원에서의 영웅화에 그쳤고 쇄국 정책의 실패와 명성황후와의 관계를 부각시켰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植民史觀을 청산하려는 노력과 함께 大院君 시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李瑄根의 『韓國史, 最近世觀』 및 일련의 논문들은 대원군을 근대화의 선구자로 보고 이 시기를 한국사에서 근대화의 起點으로 인식하기도 했다. 정치적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成大慶의 「大院君 정권 성격 연구」를 비롯한 일련의 논문에서는 大院君 執政期 文科運營의 실태를 통해 당시 科擧政策 및 人事選拔이 능력 위주가 아니라, 宗親強化에 목적이 있었음을 밝힘으로써 대원군 정권이 보수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1990년대에는 인사 정책 및 출신 봉당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졌고 安外順 「大院君 執政期(1864-1873) 政治的 支配勢力에 관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金炳佑, 「대원군의 정치 세력과 農民抗爭拾策」, 계명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대원군 정권의 직접적인 지지기반 및 文·武·宗班의 三班의 位相에 대한 비교 인식이 가능해졌다(金世恩, 「대원군집정기 軍事制度의 정비」, 『韓國史論』 23집, 서울대 국사학과 (1990), 275~325쪽). 또한 최근에는 대원군 집권기의 권력 집단의 동향 및 서양세력에 대한 대응과 군비 증강 등 보다 세분화된 연구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延甲洙, 「大院君執權期(1863-1873) 西洋勢力에 대한 대응과 軍備增強」,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안외순, 「大院君執政期(1864-1873) 權力構造에 관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2~6쪽 참조]

- 2) 이하응의 묵란화에 대한 연구로는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을 비롯한 몇 편의 拙稿들이 유일하다. 그 논문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石坡 李昰應의 墨蘭畫 연구(試論)」, 『韓國學大學院論文集』,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1997), 「石坡 李昰應(1820-1898)의 墨蘭畫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6), 「石坡 李昰應(1820-1898) 墨蘭畫風의 형성」 12집, 『美術史學研究』 233·234호, 한국미술사학회 (2002. 6), 「『大院君天津往還日記』와 保定府 時節 李昰應의 墨蘭畫」, 『藏書閣』 제7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8)

그의 인생관이나 사상을 유추해 보려고 한다.

## II. 生涯

### 1. 家系와 人物

李畧應은 조선왕조 제26대왕 高宗(在位: 1863~1907)의 生父로서, 興宣大院君은 그의 봉작명이며 보통 大院君이라 불리어진다. 그는 1820년(純祖 20년) 12월 21일, 서울 안국동에서 南延君 李球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字는 時伯이며, 號는 石坡이다. 그림의 款畧에는 널리 통용되는 석과 외에도 老石, 老石道人, 楡履道人, 老梧樵人, 海東居士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호를 사용했다. 1898년 2월에 사망했으며, 시호는 獻懿이고 1907년에 大院王으로 추봉되었다.

이하응의 가계는 英祖(在位: 1724~1776)의 아들 思悼世子(莊祖)에서 파생되었다. 사도세자가 세자빈 洪氏에게서 얻은 아들이 正祖이고, 궁녀 肅嬪 林氏에게서 얻은 세 아들 중 둘째 아들이 恩信君이었다. 恩信君이 후사가 없어 仁祖의 셋째 아들인 麟坪大君의 5대손 秉源의 아들을 양자로 삼았는데, 바로 그가 이하응의 親父인 南延君 球였다. 이하응은 네 형제 중 막내로서 위로 昌應, 晟應, 最應 세 형이 있었다. 가계로 볼 때 그는 실세한 왕족이긴 하지만 그 당시 얼마 안 되는 왕족 가운데 혈통이 분명한 왕손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척족제도 앞에서 이미 무력해진 落魄王孫이었기 때문에 내심으로는 야심을 키워 가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무능한 왕족으로 살아야 했다.<sup>3)</sup>

이하응의 가계에 대해서는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정리해 두기로 하고 그의 인물됨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당시 이하응을 직접 대면했던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그는 다섯 자 두 치의 키로 체구는 작았으나 “원기가 있고 그

3) 이하응의 후손에 대해 살펴보면, 그는 여흥 민씨 致久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 3남 3녀를 두었다. 큰아들은 載冕(完興君, 1845-1912), 둘째 아들은 載冕(翼成君, 고종, 1852-1919), 그리고 서자로 載先(完恩君, ?-1881)이 있었다. 큰딸은 趙慶鎬, 둘째 딸은 趙鼎九, 서녀는 李允用에게 각각 출가했다. 그리고 재면의 아들로 竣鎭(1870-1917)이 있었다. 한영욱, 『명성황후와 대한제국』, 효형출판(2001), 30쪽 참조.

눈은 항상 번득번득하여 보기에 무서우며” 무엇이라 형언하기 어려운 넘볼 수 없는 위엄이 있었다고 한다.<sup>4)</sup> 또한 “변설은 지혜롭고 교묘하며 多衆과 어울리면 중후한 격조를 보였고 이해타산엔 실리적이어서 허례허식을 몰랐다”고도 한다.<sup>5)</sup> 이렇듯 그는 다면적 성향의 인물로 그의 인물됨에 대해서는 평자의 입장에 따라 의견이 다르지만, 그들이 내린 평의 공통점은 그가 비범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그의 생전 모습을 담은 사진 자료 가운데 거북 흉배를 착용한 관복 차림의 사진은 이러한 그의 성품을 직접적으로 전해 주는 듯하다(圖 1). 흉배 문양으로 거북을 사용한 것은 고종 32년(1895)에 大院君尊奉儀節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이하응만이 사용했던 흉배로 전해진다.<sup>6)</sup> 따라서 이 사진은 1895년(76세) 경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圖 1. 李昰應 사진, 1895년(76세) 경

4) 柳永益, 「興宣大院君」, 『韓國史市民講座』 13, 일조각 (1993), 91쪽.

5) 菊池謙讓, 『李太公及閔后合傳』, 성진문화사 (1973), 19쪽.

6) 김영숙, 『한국복식문양사전』, 미술문화 (1999), 36쪽과 423~426쪽 참조.

한편, 기존 연구 분야에서의 이하응의 인품에 대한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그에 대해 좋게 평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가 호협·쾌활한 성품의 소유자로서 과감한 실천력, 목적 달성을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투지, 그리고 집권을 향한 열화 같은 야심을 겸했던 정치가였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가 빈한한 가운데서도 재물을 탐내지 않은 점과 대인관계에 있어 신분의 高下에 구애됨이 없이 소탈했던 점을 또한 높이 산다. 반면에 그를 나쁘게 평하는 사람들은 그가 잔악한 성격의 소유자였음을 강조한다.<sup>7)</sup>

이러한 상반된 평가는 그의 정책 추진에 기인된 바가 크다. 예컨대 書院撤廢(1864)와 戶布法 實施(1865) 등 국내 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한 실천력을 가진 개혁자로, 天主教徒의 처형(병인박해, 1866)과 鎖國政策에 대해서는 잔학한 폭군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sup>8)</sup> 당시 개화파 가운데 한 사람인 朴泳孝는 “大院君은 잘났었다. 그러나 대세가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보일 때는 용감하게 무슨 일이든 감행할 수 있는 인물이었지만 형세가 불리하다고 짐작한 경우에는 매우 약한 인물이었다.”라고 하여 그의 양면적 성향을 지적하기도 했다.<sup>9)</sup>

현재 전해지는 그의 초상화 가운데는 그가 정치력을 한껏 발휘하던 시기인 1869년(50세)에 제작된 것이 세 점 있는데, 집권 당시의 그의 인물됨에 대한 평가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세 초상화에는 모두 ‘己巳年(1869) 肇夏(이른 여름)에 李漢喆(1812~1893년 이후)과 劉泓이 그렸고, 韓弘迪이 粧潢한 것’이라고 직접 題를 썼다. 초상화 가운데 하나는 문무백관들의 하례나 의식이 있을 때 입던 예복인 金冠朝服을 착용한 모습이고(圖 2), 또 하나는 사모관대를 하고 木靴를 신은 관복 차림이며(圖 3), 다른 하나는 鶴氅衣에 臥龍冠을 쓴 선비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圖 4)<sup>10)</sup>.

이들은 전해지는 그의 초상화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모습을 담고 있으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하던 시기에 한꺼번에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당시 그가 추구한 삶의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추측하게 한다. 특히 정치가로서의 면모와 함께

7) 柳永益, 앞의 논문, 91쪽

8) 成大慶, 「大院君 정권 성격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84), 3쪽

9) 李瑄根, 『韓國最近世史研究』, 휘문출판사(1985), 190쪽.

10) 이들 초상화 가운데 학창의와 외룡관을 착용한 것은 책상 주위에 배치된 문방구들이 역대 초상화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형식을 취하고 있어 앞으로 상세한 연구가 요구된다(圖 4).



圖 2. 李漢喆・劉泓, <李顯應 五十歲像>  
1869년(50세), 서울역사박물관



圖 3. 李漢喆・劉泓, <李顯應 五十歲像>  
1869년(50세), 서울역사박물관



圖 4. 李漢喆・劉泓, <李顯應 五十歲像>  
1869년(50세), 서울역사박물관



圖 5. 李漢喆・李昌鈺, <李顯應 六十一周甲像>  
1881년(61세), 서울역사박물관

선비로서의 자세를 동시에 부각시키고자 했던 그의 의도가 주목된다. 따라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그에 대한 인상이나 평가는 그의 진면목의 일부분일 수밖에 없다는 잠정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실제로 이하응은 정치적인 관계를 떠난 개인적인 만남에서는 상당한 존경을 받았던 듯하다. 失脚하여 雲岷宮에서 은거하던 시절에 그를 만났던 小癡 許鍊(1807~1890)은 『小癡實錄』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sup>11)</sup>

大院君께 이르러 床 아래에서 절을 하니 처음 하는 말이 이러했다. “小癡가 이승에서 나를 알지 못하면 소치가 못되지요” 순순하게 하는 말이 너그러운 정의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림의 요체에 관하여 말이 미치자 더욱 말이 淸雋하고 高雅하여 바로 心脾를 밝혀 열어 주었다. 나는 곧 바로 고하기를 “이승에서 원하던 것은 이제 다하였습니다.”고 하였다.<sup>12)</sup>

또한 그는 委巷 詩人들과도 교류하며 그들의 창작 활동을 후원했고,<sup>13)</sup> 풍류와 음악을 애호하여 歌客들을 가까이 하기도 했다.<sup>14)</sup> 무엇보다 김정희 문하에서 秋史派 文人들과 교분을 맺으며 그림과 글씨로 명성을 얻었던 점 등 문화예술 방면에서의 활동을 고려한다면, 이하응의 인물됨에 대한 극단적 견해 차이를 해소시키고 보다 객관적인 인간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하응의 예술방면에서의 행적은 30대 무렵에 제작한 작품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더구나 그가 성장기에 어떠한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더욱 불확실하다. 朴殷植은 『韓國痛史』

11) 小癡 許鍊은 처음에는 이름을 維라 했다가 후에 鍊으로 개명했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두 이름이 혼용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鍊으로 쓰기로 한다.

12) 許鍊, 『小癡實錄』, 金泳鎬 編譯, 瑞文堂 (1976), 144 쪽

13) 李旻應은 高宗 元年에 속칭 萬里長城집이라 불리는 七松亭을 중심으로 한 七松亭詩社의 위향 시인들을 위하여 경복궁을 증축하는 김에 황폐한 칠송정을 修築해 주었다고 한다. 당시 七松亭詩社를 이끌던 盟主는 이하응으로부터 庇護를 받았던 胥吏詩人 趙基完이었다. 이곳에서 胥吏時調作家 朴孝寬, 安玟英, 金允錫, 河圭一 등이 모여서 歌曲源流를 편찬함으로써 時調文壇에 마지막 盛觀을 이루었다[具滋均, 『朝鮮平民文學史』, 民學社(1974), 109 쪽].

14) 李旻應은 정치적인 집념과 아울러 花柳閭巷에도 일대 선풍을 일으켰다. 雲岷宮에 朴孝寬과 같은 歌客과 더불어 짓대 피리 등 風流의 名人들이 출입하고, 장안의 명기 명창이 항시 대령했다고 한다[張師勛, 『黎明의 東西音樂』, 寶晉齋(1974), 38 쪽].

(1915)에서 그를 가리켜 “대저 그 자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였고 제주도 일을 할 수 있는 재주였고 시기 또한 일을 할 수 있는 때였는데… 애석하게도 학식이 없어서” ‘新朝鮮’을 건설하는 데 실패했다고 논단했다. 그러나 그가 젊어서 童蒙敎官을 지낸 일이 있으며 격조 높은 漢詩를 많이 남긴 사실 등으로 볼 때, 그는 충분한 유교적 소양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다.<sup>15)</sup>

동시대의 일본인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는 이하응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그는 타고난 성품이 모질고 사나워서 사람을 해치고도 꺼리는 점이 없었다 … 다른 한편, 그의 됃됨이를 살펴보면 즐겨 책을 읽어 周公과 孔子의 道를 말하면서도 늘 國體를 주장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우리 일본에서 본다면 儒學子나 皇學子의 정신을 겸비한 사람과 같다고 할 수 있다.”<sup>16)</sup> 이하응에 대한 이 같은 평가는 그의 과감하고 극단적인 정치적 성향 이면에 자리한 好學的인 태도를 말해 주는 것이라 주목된다. 특히 그의 초상화 가운데 선비의 복색인 鶴氅衣에 臥龍冠을 쓴 <五十歲像>(圖 4)과 幅巾(幘巾)에 학창의를 착용한 <六十一周甲像>은 바로 그의 好學的 면모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圖 5). 이러한 그의 호학 태도는 스승 김정희에게서도 그 소양을 인정받았던 듯, 젊은 시절 김정희 문하에서 글씨와 묵란을 배워 높은 수준에 도달했음은 알려진 바와 같다.

이렇듯 이하응의 교양이나 학식에 대해서는 자료 부족으로 인해 현재로서는 그 대략적 면모를 짐작하는 정도에 머물 수밖에 없다. 또한 그의 정치사상이나 역사관에 관한 부분 역시 분명하게 알려진 것이 없다. 다만 집권 시에 그가 實學派 인물들을 요직에 중용했으며, 李瀼(1681~1763)과 安鼎福(1712~1791) 등 실학자를 추존한 사실로 미루어 그가 實學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sup>17)</sup>

그런데 그의 墨蘭畵의 款畧과 自作詩 가운데 단편적이거나 그의 思想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 주목된다. 이하응의 경우, 그림의 款畧에 號 외에 자신을 지칭하는 표현을 적기도 했는데, 이 가운데 실학자들의 歷史意識을 계승한

15) 柳永益, 앞의 논문, 91쪽

16) 『福澤諭吉全集』 제8권, 266쪽 [藤間生大, 「대원군 정권의 구조」, 『한국근대정치사연구』, 사계절출판사, (1985), 146쪽에서 재인용.

17) 柳永益, 위의 논문, 89~90쪽 참조





圖 6. 李昀應  
1886년(67세) 作  
<石蘭圖>軸의  
款署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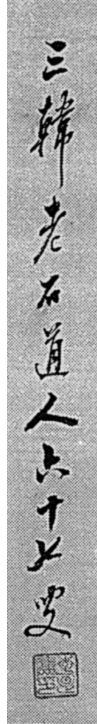


圖 7. 李昀應  
1886년(67세) 作  
<石蘭圖>對聯의  
款署 부분

듯한 표현이 있어 눈길을 끈다. 그는 1886년(67세)에 제작한 <石蘭圖>의 款署에 ‘三韓石坡六十七叟作’ 혹은 ‘三韓老石道人六十七叟’라고 적었는데(圖 6, 7), 자신의 호 앞에 ‘三韓’이라고 款署한 것은 바로 李瀾의 ‘三韓正統論’으로 대표되는 실학자들의 역사관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익의 ‘삼한정통론’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이익은 ‘삼한정통론’을 통해 정통의 시발이 檀君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한국사의 정통은 檀君→箕子→三韓(三國無統)→新羅文武王→高麗로 정통체계를 구성했다.”<sup>18)</sup> 이러한 입장은 제자 安鼎福에게 전수되어 箕子 이전에 이미 문명이 시작된 것으로 이해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상의 맥락은 이하옹의 역사의식과 그의 정책에 대한 배경적 이해를 위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조선 후기에는 성리학이 토착화되어 역사 서술체제에서는 성리학적 정통론에 입각한 綱目體 史書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들은 中華文化를 전달한 箕子朝鮮을 정통으로 보고, 衛滿朝鮮을 찬탈자로 보아 조선이 곧 중화라는 華夷論에 입각한 역사관을 표방했다. 이들은 檀君·箕子를 내세워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중화문화(=유교문화)의 연원이 더 깊다고 보고 조선 중화라는 ‘조선제일주의’를 내세웠고, ‘조선만이 중화’라는 조선제일주의가 北伐論으로 표방되는 민족의식이었던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숙종 초의 南人 許穆(1595~1682)이 『東史』를 저술하여 단군 조선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고, 숙종 말

18) 韓永愚, 『朝鮮後期史學史研究』, 一志社 (1989), 175쪽.

년 소론학자 林象德이 『東史會綱』을 써서 고대의 강역과 단군에 대한 사실을 고증했던 것을 들 수 있다.<sup>19)</sup> 또한 허목 계통을 잇는 이익은 檀箕에서 시작하여 三韓으로 이어지고, 三國은 無統의 시대, 그리고 文武王의 三國統一과 高麗 太祖 19년 이후를 正統國家로 간주했다. 이들에 의하면 한국사는 중국사보다도 정통성이 더 지속된 역사라 할 수 있다.<sup>20)</sup> 이러한 사상은 뒤에 衛正斥邪派까지 이어졌다.<sup>21)</sup>

집작컨대, 이하응의 척화정책도 바로 이와 같은 사상사적 계보에 입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하응의 자작시 가운데 이러한 위정척사 사상이 그대로 드러난 예가 있어 주목된다.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霞城文庫에 소장된 『大院君天津往還日記』에는 이하응이 淸 保定府에 유배되었을 때 쓴 자작시 17首가 수록되어 있다.<sup>22)</sup> 그 가운데 8편은 連作詩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 중 ‘尊周大義 와 ‘衛正斥邪라는 제목의 시는 그의 對淸 인식과 斥邪思想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尊周大義란 周나라를 존중해야 한다는 공자의 春秋大義와 같은 개념으로, 여기서 주나라는 중화문화의 상징으로 이해된다.<sup>23)</sup> 이러한 사상은 왜란과 호란을 겪은 후 조선이 중화문화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유일한 후계자라는 崇明反淸 운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明을 높이고자 한 것이라기보다 淸을 도덕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문화의 우위를 확인하려는 자존심의 발로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상은 대한제국의 성립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sup>24)</sup>

이하응의 詩를 통해 볼 때 그는 이 같은 존화사상과 위정척사사상을 지니고 있었으며, 특히 淸에 의해 피납된 후에는 더욱 확고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는 『綱目輯要』라는 책을 친히 編述했다고 전해지는데, 이로 미루어 그는 정통론에 입각한 민족의식에 깊이 고무되어 있었으며, 그러한 역사의식은 결국 衛正斥邪論으

19) 池斗煥, 『韓國思想史』, 역사문화 (1999), 250~254 쪽 참조

20) 韓永愚, 앞의 책 (1989), 204 쪽

21) 池斗煥, 위의 책, 252 쪽.

22) 自作詩 17首의 내용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 「石坡 李崐應(1820-1898)의 墨蘭畫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02. 6) [부록 4], 263~268쪽 참조

23) 尊周大義와 衛正斥邪 사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옥자,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연구』, 일지사 (1998), 184~263쪽을 참고하기 바람

24) 한영우, 『다시 찾는 우리역사』, 경세원 (1998), 369쪽 참조

로 귀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그의 역사의식의 일단을 통해서 그의 식견과 소양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風水地理說에 따라 아버지 南延君의 묘를 충청남도 덕산 大德寺 석탑 아래로 이장한 일과 景福宮 重建役을 개시하기 전에 세검정 石瓊樓 아래에 讖言을 묻게 한 예로써 미루어 그는 圖讖說을 믿거나 이를 잘 이용한 인물이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黃玟(1855~1910)의 『梅泉野錄』에도 “그는 術士를 좋아하여 卜筮로 운명을 점치는 사람들이 그의 좌우를 떠나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어, 그가 다양한 사상을 견지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sup>25)</sup>

이상에서 이하응의 가계와 성격, 정치사상 및 역사의식 등에 관해 추론해보았다.

## 2. 예술가로서의 생애 구분

현재 여러 학문 분야에서 이하응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의 생애 가운데 大院君이 되기 이전의 행적에 관해서는 현재로서는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sup>26)</sup>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연구가 그의 1차 집권기(1864~1873; 45~54 세)에 집중되어 있어 그의 창작활동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못해 아쉬움을 남긴다.

역사학과 정치학 등 기존의 연구에서 이하응의 생애에 대한 연구는 정치활동을 기준으로 하여 그의 집권 시기에 중점을 두고 대체로 3단계로 나누어 고찰되었다. 즉 高宗 즉위로 비롯되는 1차 집권(1864~1873), 壬午軍亂을 통한 2차 집권(1882.

25) 黃玟 著·金濬 譯, 『梅泉野錄』, 敎文社 (1996), 28 쪽

26) 이하응의 생애에 관한 인식 가운데 그가 大院君이 되기 전에는 안동 김문을 찾아가 구걸하다시피 할 정도로 가난했으며 품행이 단정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黃玟의 『梅泉野錄』과 『興宣大院君略傳』(필자미상)과 같은 동시대 인물들의 글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류시원은 『풍운의 한말 역사 산책』, 한국문원 (1996), 192~197 쪽에서 이하응이 25 세 때 憲宗에게 받은 敎旨를 소개하며 그의 궁핍설에 의문을 제기했다. 교지의 내용에 의하면 노비 6 인과 토지 50結을 특별히 상으로 내린다고 되어 있는데 50 결의 땅은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대략 50만㎡에 해당되는 넓은 면적이다. 이는 성품이 검소했던 그가 젊은 시절부터 소유했던 것으로 가난한 삶을 살았다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그의 생애에 관해서는 앞으로 더욱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10~7. 12) 甲午更張 때의 3차 집권(1894. 6. 21~10. 21) 이 그것이다<sup>27)</sup> 이 글에 서는 그의 생애를 창작활동시기와 정치적 궤적을 함께 고려하여 몇 가지 단계로 구분하고자 한다.

예술창작 활동을 기준으로 하여 이하응의 화풍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볼 때, 그의 생애는 中國 保定府로 연행되기 전과 돌아온 이후로 크게 2단계로 나눌 수 있고, 정치적 浮沈과 관련하여 좀 더 자세히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4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는 집권 전 불우한 청년기를 보내며 秋史 金正喜의 書畵에 경도된 시기(1820~1863년)로 그의 나이 44세까지에 해당된다.<sup>28)</sup> 이 시기는 그가 불우한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도 김정희의 영향 하에서 예술적 기반을 굳게 다지던 시기라 할 수 있다(圖 8, 8-1). 그는 김정희로 부터 “隸字는 佳好하여 蘭과 더불어 雙美할 만 합니다. 屋頭에 무지개 빛이 관통하겠습니다.”라든가 “[石坡의 墨蘭은] 압록강 以東에 그와 견줄 만한 작품이 없을 정도로 탁월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다.<sup>29)</sup> 그런데 이하응이 大院君이 된 것은 김정희가 세상을 떠난 지 7년 후인 마흔 네 살 때의 일이다. 따라서 김정희가 사망한 것이 그가 대원군이 되기 전인 1856년(37세)이었



圖 8. 李昰應, 《墨蘭帖》14面 중 1면  
1851년(32세), 紙本水墨, 32.2×25.2cm  
개인소장



圖 8-1. 金正喜, 《蘭盟帖》22面 중 제6면  
紙本水墨, 27.0×22.9cm  
潤松美術館

- 27) 尹眞淑, 「興宣大院君의 執權과 政治性向 研究」,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5), 4 쪽  
28) 고종 즉위 이전의 李昰應의 행적에 대해서는 연갑수, 「대원군 집정의 성격과 권력구조의 변화」,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1), 8~12쪽을 참고하기 바람  
29) 金正喜, 崔完秀 譯, 『秋史集』, 현암사(1976), 330 쪽

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면, 이하응은 안동 김씨 세도가들로부터 무시당하던 30 대 전반에 이미 金剛眼을 자부하는 김정희로부터 높은 평을 받은 셈이다.

제2기는 大院君이 되어 과감한 정치를 수행한 1차 집권기(1864~1873)와 명성황후와의 갈등으로 下野하여 은거하던 시기(1874~1882. 5)로 그의 나이 45 세부터 62세까지에 해당한다. 난세의 뛰어난 정략가로서 國政을 요리할 식견을 갖추고 있었던 그는 정권을 잡게 되자 안으로는 세도정치를 분쇄하고 쇠락한 왕권을 공고히 하며, 밖으로는 침략적 접근을 피하는 외세에 대적할 실력을 키워 조선을 중흥할 혁신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갔다.<sup>30)</sup> 그러나 그는 명성황후와 完和君 문제로 사이가 멀어진 후,<sup>31)</sup> 개화정책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해 정치적 대결을 벌이게 되었고, 마침내 하야하여 은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하응은 실각한 후 楊州 直谷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2년여의 세월을 보내게 된다.

그런데 직곡으로 내려간 이후 이하응은 조용한 隱者로서의 삶을 누렸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梅泉野錄』에 의하면 1874 년 봄에 대원군이 직곡으로 내려가자 유생들이 대궐 앞에서 국왕의 처사를 규탄하는 시위가 있었고, 7월에는 영남과 호남 유생들의 상소가 있었다고 한다. 또한 1875년(56세) 봄, 경상, 충청, 전라 3 道의 유생들이 궐문에 엮드려 연명으로 상소하여 고종의 불효를 논하고, 조정에서는 柳道洙, 李相喆 등이 대원군의 回駕를 상소하다가 변방으로 유배되는 등 직곡에 있는 대원군 문제로 인해 정치적 소요가 계속 야기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1875년 6월 22 일 마침내 이하응은 자신의 奉還을 주장하던 자들을 극형에 처하려던 고종의 강경책으로 위험에 처한 儒生들을 구하기 위해 雲岷宮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런데 이하응이 직곡에서 물러나와 운현궁으로 돌아온 것은 자발적인 형식을 취하기는 했으나 그것은 고종에 대한 정치적 굴복이나 마찬가지

30) 李崐應의 집권과정과 치적에 대한 내용은 柳永益, 「興宣大院君」, 91~113쪽과 金義煥 해설, 「새로 발견된 『興宣大院君略傳』」, 『사학연구』 제39호, 한국사학회 (1987. 6), 370~378쪽, 그리고 『한국 민족문화대백과사전』 18, 331쪽을 참조

31) 完和君(1868-1880)은 고종의 서자로 후궁 李氏 소생이다. 이름은 堉이며 시호는 孝憲이다. 명성황후는 비에 책봉될 당시 온순하고 예절에 밝아 칭송이 자자했다. 그러나 고종이 후궁들을 가까이 하고 그중 이씨가 왕자 선을 낳은 후로는 질투가 심해졌고, 게다가 대원군이 첫 왕손으로 이를 극진히 사랑하니 대원군을 적대시하는 동기가 되었다. 선이 어려서 급사한 것도 민비의 음모라는 설이 있다.

였다. 따라서 심리적으로는 직곡산방 시절보다 더욱 힘겨운 시기를 보내게 되었다. 이하응은 운현궁에서 1875년(56세) 6월부터 임오군란 직후 淸에 의해 天津으로 납치되던 1882년(63세) 7월까지 머물렀다.

이하응은 집권 당시(45~54세)에는 국정에 임하느라 작품을 제작할 여유를 갖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러나 1차 집권에서 실각한 후(55~62세), 직곡산방과 운현궁에서 은거한 기간 동안 마치 울분을 토해내 듯 많은 작품을 제작했다(圖 9). 직곡산방에서는 露根蘭을 중심으로 한 ‘群蘭畫’ 형식과 배경적 요소와 함께 그린 ‘石蘭畫’ 형식 그리고 縱軸의 ‘叢蘭畫’ 형식이라는 세 가지 유형의 묵란화를 제작했는데, 이는 예술가로서의 그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 세 가지 유형의 묵란화 구도법은 운현궁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지속되었으나, 群蘭畫와 叢蘭畫는 점차 퇴조하는 경향을 보였고, 石蘭畫는 彩色으로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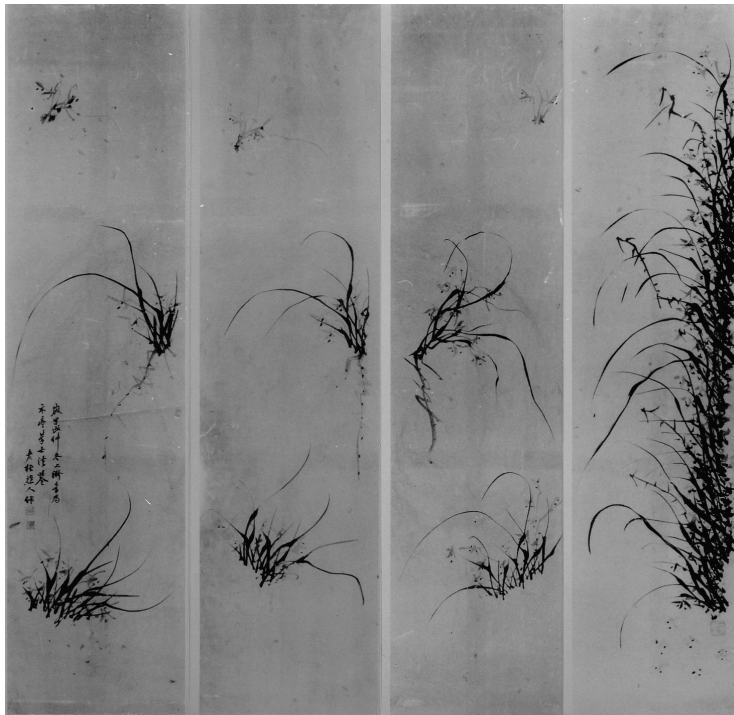


圖 9. 李昞應, <群蘭圖>10幅 屏風 중 4폭, 1874년(55세), 紙本水墨  
各 123.6×29.0cm, 국립중앙박물관

하기까지 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거듭하며 발전해 가는 면모를 보였다. 이는 스승의 영향에서 벗어나 이하응 자신의 개성적 화풍을 수립한 것으로, 이후 石坡蘭의 전형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제3기는 임오군란(1882) 때 잠시 재집권(2차 집권)했으나 淸軍의 개입으로 天津 保定府로 연행되어 3년간 幽閉 生活을 하던 시기(1882. 7~1885. 8)로 그의 나이 63세부터 66세까지에 해당된다. 이 시기는 그의 생애의 다른 시기에 비해 기간은 비록 짧지만 이후부터 그의 묵란화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창작활동 면에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아 시기를 따로 구분했다.

天津 保定府에서의 이하응의 삶과 예술을 이해하기 위해 당시의 국내외 사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이하응이 하야한 이후 국제정세는 말할 수 없이 복잡해져 갔다. 일본이 운양호사건(1875년)으로 조선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자 淸國은 점차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고, 여기에 남하하는 러시아 세력은 청국의 국경에 커다란 위협을 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청국은 조선 스스로 일본에 대항할 힘이 없다는 것과 직접 개입할 만큼 여력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일본에게 선수를 빼앗긴 것을 회복하기 위해 조선에 서구열강과 수교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하면서 미국과 조선과의 교섭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는 조선의 백성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유생들은 반발하여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통상에 반대하는 상소인 嶺南萬人疏를 비롯한 적사상소운동을 벌이게 되었다.<sup>32)</sup> 유생세력은 만민소 운동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요구가 국왕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음 단계로 대궐 앞에 엎드려 호소하는 伏閣上疏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대원군파에 접근하여 연계를 모색하기도 했다. 이에 대원군파의 일부 세력이 유생들의 제의를 수용하여 이 상황을 정권 재탈환의 호기로 생각하고 쿠데타를 계획했다. 1881년 마침내 대원군파의 핵심 인물인 安驥泳, 權鼎鎬 등은 국왕을 폐하고 고종의 이복형인 李載先을 추대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 일은 모의 단계에서 발각되어 실패하고 말았다.<sup>33)</sup>

32) 영남만민소 운동 및 儒林과 李昀應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鄭震英, 「19세기 후반 영남유림의 정치적 동향」, 『한말 영남 유학계의 동향』, 영남대출판부 (1998), 101~174 쪽 참조

33) 조성윤, 「개항 직후 대원군파의 쿠데타 시도-이재선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근대정치사연구』, 사계절출판사 (1985), 176쪽. 李載先 추대사건의 배후 인물로 李昀應이 지목되고 있으나 사전에 계획을 보고 받은 이하응은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회의적인 태도를 표명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이를 빌미로 고종과 민씨 일파는 척사상소운동을 강력하게 제압하고 나섰다. 그러자 개화파와 위정척사파의 알력은 더욱 심해졌고, 1882년 구식군대 폐지와 관련하여 5군영에 소속됐던 군인들에 의해 壬午軍亂이 일어났다. 亂을 일으킨 병사들이 운현궁으로 몰려와 李昰應에게 정국에 개입할 것을 요청했고, 이에 이하응은 9년간의 은거 생활을 청산하고 마침내 재집권하게 되었다. 이 때가 그의 2차 집권이다.

이하응이 임오군란을 계기로 재집권하게 되자 조선의 대외정책에 적극 개입하고 있었던 청국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청국의 이 같은 위기의식은 마침내 무력적인 개입을 초래하게 되어 吳長慶·丁汝昌이 이끄는 4천 여명의 淸軍이 두 차례에 걸쳐서 조선에 들어왔다. 청군이 파병될 때 군란의 진압을 위해 이하응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은 일본과도 은밀히 논의된 상태였다. 따라서 이하응의 납치와 군란의 진압을 위한 청군의 무력개입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1882년(63세) 7월 13일, 청나라 장수의 만찬 초대에 참석한 이하응은 그 연회장에서 조선에 진주한 李鴻章의 북양육군에 의해 체포되었다.<sup>34)</sup> 납치된 이하응은 청나라 장수 정여창에 의해 天津으로 압송되었다. 재집권 34일만의 일이었다. 그로부터 그는 3년 2개월 동안 머나먼 이국땅 保定府라는 寒村에서 예기치 못한 감금 생활을 하게 되었다.

보정부에서의 생활은 원한과 병고와 고독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때로는 귀환을 종용하며 초조해 하기도 했으나, 안으로 한을 삭이며 난을 치면서 세월을 보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후 1885년 8월 27일, 조선통상사무전권위원으로 부임하는 袁世凱와 함께 마침내 이하응이 귀국했다. 임오군란 진압 이후 조선 정

있다(조성윤, 같은 논문, 182쪽).

34) 李昰應의 피납에 관한 부분은 다음 자료를 참고했다.

- 권석봉, 「大院君의 保定府 안치와 환국」, 『清末對朝鮮政策史研究』, 일조각(1986), 262~334 쪽
- 권석봉, 「大院君의 被囚와 朝·靑관계」, 『韓國史學論叢』(1997), 327~346 쪽
- 金正起, 「大院君납치와 反淸意識의 형성(1882-1894)」, 『韓國史論』 19, 서울대학교 국사학과(1988. 8), 479~503쪽.
- 沈允景, 「大院君 피납과 조청관계」,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6).
- 金義煥 해설, 「새로 발견된 『홍선대원군약전』」, 『사학연구』 제9호, 한국사학회(1987. 6), 363~400 쪽
- 黃玟 著, 金濬 譯 앞의 책 129~130 쪽



부는 청국의 종주권이 강화되는 것에 저항하여 자주 외교 노선을 강화하려 했다. 이에 청국은 그 대응책의 하나로 이하응이 고종과 명성황후를 견제할 것을 기대하며 그를 석방하기로 했던 것이다.

보정부에서의 유폐 기간 동안 그는 병고와 불안감에 시달리면서도 여전히 墨蘭畵를 제작했다. 유폐 초기에는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지 전해지는 작품이 없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안정을 되찾은 듯 유폐기 중후반에 제작된 일련의 작품이 전해진다. 유폐 기간 중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제작된 그림에서는 오랫동안 작품을 제작하지 못했던 것을 만회하려는 듯 하나의 병풍에 직곡산방 시절에 시도했던 여러 가지 형식을 망라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에는 시종일관 石蘭畵만을 고집했으며, 귀국 직전에 제작된 그림에서는 난엽이 힘차게 위로 향하는 등 운필에 힘이 넘쳐 당시 그의 심리를 보는 듯하여 흥미롭다(圖 10). 황현의 『매천야록』에는 “그가 중국 보정부에 구금되어 있을 때, 중국인들도 그가 그린 石坡蘭을 많이 구입해 갔다고 한다”는 기록이 있어 석파란의 명성이 이 시기에 중국에까지 전해지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sup>35)</sup>

제4기는 淸으로부터 귀국한 후 정권에 더욱 집착하여 명성황후와 대립하게 된 말년(1885. 9~1898. 2)으로 그의 나이 66세부터 79세까지에 해당된다. 이하응은 청에서 귀국한 뒤에도 끊임없이 정권 복귀를 꿈꾸었지만 거듭 실패하고 만다. 따라서 은거하는 기간이 길어져서인지 이 시기에 제작된 그림이 가장 많이 전해진다. 여기서 당시 국내외 정세와 이하응의 처신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이하응은 1885년 중국에서 귀환한 후, 거의 10년간 운현궁에 유폐되었다. 겹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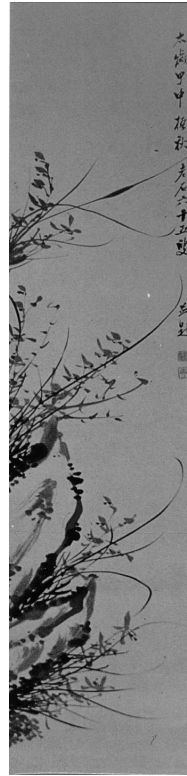


圖 10. 李昉應, <石蘭圖>軸  
1884년(65세), 絹本水墨  
121.4×28.8cm  
일본 고려미술관

35) 黃玹 著·金濬 譯, 앞의 책, 170쪽.

이 감시의 담장을 쌓고 民의 접근을 엄금하는 등 그의 정치 개입을 막고자 명성황후 측에서 취한 조치였다.<sup>36)</sup> 그러나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권에 대한 집념을 버리지 못하고 재기의 기회를 노렸다.

1894년 청일전쟁을 앞두고 일본은 甲午更張을 추진하면서 이하응을 이용하여 권력 기반이 취약한 개화파 정부의 약점을 보완하고자 했다. 75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이하응은 국왕으로부터 군국기무를 총괄하도록 위임받고 정치일선에 나서게 되었다. 이 때가 그의 3차 집권(1894. 6. 21~10. 21)이다. 그러나 일본이 바라는 것과 달리 그가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피력하자 일본은 그를 은퇴시키고 金弘集 內閣을 중심으로 更張事業을 추진했다. 이하응은 결국 일본에 의해 이용만 당하고 孔德里 我笑亭에서 또 다시 윤패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sup>37)</sup> 키쿠치 켄조(菊池謙讓)에 의하면, 그가 공덕리 아소정에서 謫居할 때, 새벽에는 水村漁歌를 듣고 저녁에는 蘭草를 그리며 세월을 보내면서도 策士와 政客이 몰래 왕래했다고 한다.<sup>38)</sup> 이렇듯 그는 윤패된 가운데서도 여전히 정계복귀의 기회를 찾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하응이 다시 궁중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1895년(76세) 乙未事變 때이다. 일본은 공덕리에서 은거 중이던 그를 받들고 경복궁에 쳐들어가 引俄拒日 정책을 추진하던 명성황후를 살해하고 그의 위세를 빌려 만행을 은폐하고자 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기민한 반격으로 국왕이 러시아공사관으로 移御하고(俄館播遷, 1896) 고종의 親政이 강화되자 이하응은 다시 楊州 直谷으로 들어가 은거했다.<sup>39)</sup>

한편, 아관파천 이듬해인 1897년, 외세에 의존한 상태이긴 했으나 갑신정변, 갑오경장, 을미사변을 통해 일본에게 빼앗긴 ‘자주독립’을 되찾기 위해 전 국민의 열화와 같은 합의와 요청으로 대한제국이 선포되었다.<sup>40)</sup> 자의건 타의건 간에 자신이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을미사변 이후 마침내 대한제국이 설립될 당시, 이하응의 심경은 어떠했을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지만 1897년(78

36) 金正起, 「홍선대원군(1820-1898)의 생애와 정책」, 『東北亞』 3집 (1996), 257~260쪽 참조.

37) 李昞應의 별장인 공덕리 我笑堂의 위치, 규모와 구조, 내력 등에 대해서는 류시원 『풍운의 한말 역사산책』, 한국문원 (1996), 217~222쪽 참조.

38) 菊池謙讓, 앞의 책, 143쪽.

39) ‘李昞應’,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권18,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0), 331~332쪽 참조.

40) 한영우, 『명성황후와 대한제국』, 효형출판 (2001), 353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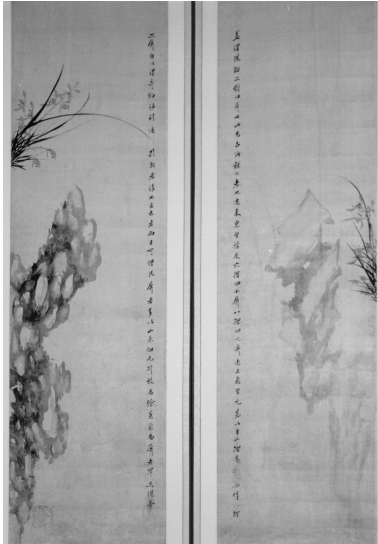


圖 11. 李旻應, <石蘭圖>12幅 屏風 중 2폭  
1891년(72세), 絹本水墨, 各 135.8×22.0cm  
서울역사박물관



圖 12. 李旻應, <器皿怪石蘭圖>12幅 屏風 중 2폭  
1891년(72세), 紙本水墨, 各 126.5×31.0cm  
대림화랑

세)에 제작한 묵란화가 전해지는 것으로 미루어 말년의 노정객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묵란화로 일관했던 것을 알 수 있다(圖 13). 1898년 2월 9일 이하응은 마침내 79세를 一期로 운현궁에서 생을 마감했다

이하응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역사상 유례없는 사건의 소용돌이 속에서 말년을 보내면서도 많은 묵란화를 제작했다. 이 시기에는 石蘭畫 형식을 주로 그리는 가운데, 특히 1887~1891년(68~72세) 사이에 제작한 작품에서는 丁學敎(1832~1914)의 怪石圖와 관련된 다양한 형상의 怪石 묘사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圖 11). 또한 이 시기에는 張承業(1843~1897)의 器皿折枝圖를 근간으로 한 器皿怪石蘭圖를 제작하기도 했다(圖 12). 그런데 그는 1887년부터 1891년까지는 괴석이 강조된 石蘭畫에 심취했으나, 1892년(73세) 이후에는 1887년(68세) 이전과 같은 정형화된 석란화로 일관했다(圖 13). 즉 화면 가장자리에서 돌출한 간일한 형태의 바위를 중심으로 그 아래위에 蘭이 구성되는 방식의 석란화로 회귀했던 것이다.



圖 13. 李聖應, <石蘭圖>對聯, 1897년(78세)  
絹本水墨, 各 118.8×32.3cm, 국립진주박물관

이렇듯 이하응은 역사의 전환기에 집권하여 과감한 정책을 편 정치사적 인물로 파란 많은 생애를 살았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주목받아 왔다. 더구나 그러한 정치적 소용돌이 가운데서도 실로 많은 작품을 제작한 예술가였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한 인물이라 여겨진다. 그의 생애는 정치 일선에서 활약했던 10여 년 간의 집권기간을 제외하면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은거 혹은 유폐 상태로 보냈고, 그러한 기간을 그는 예술가로 살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정치가로서의 생애보다 예술가로 살았던 기간이 훨씬 더 길다는 점에서 예술가로서의 그의 삶을 조명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이어서 예술 창작의 근거가 되는 그의 사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 III. 詞句印을 통해 본 學藝 思想과 人生觀

詞句印은 전해져 오는 좋은 문장이나 화가 자신이 직접 지은 文句 등을 새긴 인장으로 그림에 따라 선택적으로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화가의 사상이나 사유의 기반을 암시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李昉應의 경우 문집류의 저서가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인생관이나 학예 사상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서 그의 그림에 찍힌 사구인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하응은 집권 당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과단성으로 인해 “德보다는 힘을 가진 정치가”로 알려져 있다<sup>41)</sup> 그의 사구인 가운데는 그의 강인한 정신력과 삶에 대한 태도를 암시하는 듯한 표현이 있는데, ‘熱腸冷面傲骨平心’(뜨거운 창자 차가운 얼굴, 당당한 품모, 평담한 마음)이 그것이다(圖 14). 이는 열정적이면서도 냉철하고, 권위적이면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자 하는 그의 인생관을 압축하여 표현한 것 같아 인상적이다.

그러나 그의 그림에 사용된 사구인의 전체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그에게는 과감하고 극단적인 정치적 성향 이면에 학문과 예술을 사랑하고,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며 동화되어 살고 싶어 하는 감성적 측면도 크게 자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 흥미롭다. 예컨대, 그의 그림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구인은 ‘裒烏號不如藏此書’(烏號<sup>42)</sup>를 품는 것 보다 이 책을 소장하는 것이 낫다)인데(圖 15), 이는 武보다 文을 숭상하는 그의 好學的인 태도를 말해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 외에 ‘修成淑德 施及子孫’(맑은 덕을 닦고 이루어서 자손에게 미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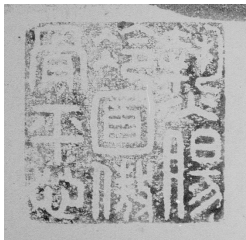


圖 14. ‘熱腸冷面傲骨平心’, 圖 12의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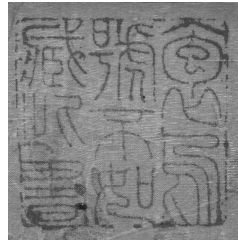


圖 15. ‘裒烏號不如藏此書’, 圖 11의 부분

41) 李光麟, 『開化黨의 大院君觀』, 『開化派와 開化思想 研究』, 일조각(1989), 77 쪽

42) 烏號는 中國의 黃帝가 소장했다는 활이름.

하리라)이나, ‘修身齊家’(몸을 닦고 가정을 바르게 하다) 등의 文句에서는 그의 진지한 修己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하응의 대표적인 사구인과 함께 그의 그림에 나타나는 사구인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그것은 크게 학예 사상과 인생관으로 나눌 수 있다. 학예 사상은 학문과 예술을 지향하는 태도로 요약되는데, 이는 金正喜의 영향에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생관은 道家的 삶을 구현하면서도 실천적인 면에서는 儒敎의 덕목과 가치를 준수하고자 했으며, 한편으로 佛教와 求福的 요소도 함께 보이는 등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하고 있어 주목된다.

## 1. 學藝 思想

李昰應의 詞句印 가운데 학예 사상에 관한 것들을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金正喜와 秋史派 문인들의 영향’, ‘蘇軾의 영향’, ‘好學 및 讀書에 관한 것’ 그리고 ‘藝術創作에 관한 것’이 그것이다. 이하응의 학예 사상에 관한 사구인을 주제에 따라 분류하고, 出典과 첫 사용 시기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먼저 李昰應의 詞句印 가운데 김정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는 ‘實事求是’, ‘金石交’, ‘沈思翰藻’, ‘翰墨清緣’ 등 김정희의 사구인과 동일한 것들을 들 수 있다.<sup>43)</sup> 이들은 實學과 考證學을 배경으로 하는 김정희의 학문과 예술 성향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하응 역시 스승과 같은 사상을 견지하고 있었음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sup>44)</sup> 또한 문자 상으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내용 면에서 김정희 사상의 영향으로 추정되는 예로 仙·佛에 관한 것이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有酒學仙 無酒學佛’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김정희의 사구인 중 ‘非仙非佛’과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그 외 ‘肯正應仙佛 此生有子孫’과 ‘谿上有雲 雲下有仙’도 仙·佛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구인들은 김정희에 대한 이하응의 존경의 정도를 짐작하게 해주는 예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43) 『阮堂印譜』, 문화재관리국·장서각 39, 43, 44, 52, 58 쪽 참조

44) 金正喜의 實學思想과 학문관에 관한 것은 고재욱, 「金正喜의 實學思想과 清代考證學」, 『泰東古典研究』 제10집, 泰東古典研究所 (1993), 737~748쪽 참조.

<표 1> 詞句印을 통해 본 學藝 思想

구분	詞句印의 내용	기법·형태	出典	첫 사용시기
金正喜 · 秋史派 文人 들의 영향	實事求是 (사실에 의거하여 진리를 탐구함)	白文方印	漢書;河間獻王傳	1875년(56세) 경
	金石交 (금석과 같이 변하지 않는 굳은 교분)	朱文橢圓印	阮堂印譜	1879년(60세)
	沈思翰藻 (깊이 생각하여 문장을 아름답게 한다)	白文方印	阮堂印譜	1897년(78세)
	翰墨清緣 (붓과 먹으로 맺어진 맑은 인연)	朱文方印	阮堂印譜	1875년(56세) 경
	陶冶性靈 (성령(마음·정신)을 도야하다)	白文方印	張之琬, 陶寫性靈	1875년(56세) 경
	我法 (나의 법)	朱文橢圓印	崔理煥; 有我	1874년(55세)
	肯正應仙佛 此生有子孫 (仙佛을 즐겨 좇았으나 이승에서는 자손을 두었다)	白文方印		1888년(69세)
蘇軾의 영향	谿上有雲 雲下有仙 (계곡 위에 구름이 있고, 구름 아래에 신선이 있다)	白文方印		1886년(67세)
	有酒學仙 無酒學佛 (술이 있으면 신선을 배우고 술이 없으면 부처를 배우리라)	朱文方印		1891년(72세)
	曾結蘇米墨緣 (일찍기 蘇軾, 米芾과 墨緣을 맺었다)	白文方印		1879년(60세)
	髻頭陀 (수염 난 수행자)	白文方印	*髻蘇 蘇軾의 異稱	1851년(32세)
好學 · 讀書에 관한 것	詩中有畫 畫中有詩 (詩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詩가 있다)	白文方印	蘇軾題跋; 書摩詰藍田煙雨圖	1879년(60세) 경
	成竹山房	白文方印	蘇軾; 簞簞谷偃竹記	1890년(71세)
	卓犖觀群書 (우뚇이 앉아 여러 가지 책을 본다)	朱文方印	後漢書; 班固傳	1875년(56세)
	褒烏號不如藏此書 (烏號(할 이름)를 품는 것보다 이 책을 소장하는 것이 낫다)	朱文方印	烏號- 淮南子; 原道訓	1875년(56세)
	讀離騷左氏太史公書 (離騷, 春秋左氏傳, 史記를 읽다)	白文方印		1875년(56세)
	幸我須眉男子 身生於禮義國 又能讀書 (다행히 나는 수염 달린 남자의 몸으로 예의가 있는 나라에 태어났고, 글을 읽을 줄 안다)	白文方印		1887년(68세)
	爲對讀書人 谿亭自聞香 (독서인을 마주하니 계정에 서 절로 향기가 난다)	朱文方印		1891년(72세)
	讀未見書 如逢良士 讀已見書 如遇故人 (아직 보지 못한 책을 읽을 때는 어진 선비를 만나듯이 하고, 이미 보았던 책을 읽을 때는 벗을 만나듯이 한다)	白文方印	讀未見之書- 五雜俎, 事部, 一	1891년(72세)
	欲藏萬卷異書 終身嘯詠其中 (만 권의 진귀한 책을 소장하고 평생토록 그 속에서 읊조리고 싶구나)	朱文方印		1891년(72세)
	左書右琴 (왼쪽에는 책을, 오른쪽에는 거문고를 둔다)	白文方印		1874년(55세)

## &lt;표 1&gt; 계속

구분	詞句印의 내용	기법·형태	出典	첫 사용시기
藝術 創作에 관한 것	餘事作詩 (여가에 하는 일은 시 짓기이다)	朱文方印	韓愈, 和席八十二韻詩	1888년(69세)
	詩癖 (시 짓기를 좋아하는 성격)	白文方印	梁書, 簡文帝紀	1879년(60세)
	第一功名只賞詩 (제일의 공명은 오직 시를 감상하는 것)	白文方印		1891년(72세)
	太白後身 (이태백의 후신(윤희에 의하여 다시 태어난) 몸)	朱文方印		1875년(56세) 경
	遊藝翰墨 (翰墨(詩文과 書畫) 속에 노닐다)	朱文方印		1896년(77세) 경
	蓄良硯墨筆紙 (좋은 벼루와 먹과 붓과 종이를 비축하다)	白文方印		1891년(72세)
	戰兢臨硯 (전전공공하며 벼루에 임한다)	白文方印		1875년(56세)
	遠溯倪黃畫派 (멀리 倪瓚과 黃公望의 畫派로 거슬러 올라가다)	朱文方印		1881년(62세)
	寫蘭作意 (난을 그리는 데 뜻을 일으키다)	白文方印		1878년(59세) 경
	喜氣寫蘭 (기뻐하는 기운으로 난을 그리다)	白文方印	芥子園畫傳; 元覺隱-喜蘭怒竹	1878년(59세) 경
	石坡書畫 (石坡의 서화)	白文方印		1874년(55세)
	石坡所作 (石坡가 그린 것)	朱文方印		1887년(68세)

이렇듯 이하응의 학예 사상의 형성 과정에서는 김정희의 영향이 지대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이하응의 사구인 가운데는 김정희에 대한 존경에 머물지 않고, 김정희가尊崇했던 蘇軾과 관련된 요소까지 나타나 주목된다. 소식과 관련된 사구인으로는 ‘曾結蘇米墨緣’, ‘髯頭陀’, ‘詩中有畫 畫中有詩’, ‘成竹山房’ 등을 들 수 있다. ‘曾結蘇米墨緣’은 북송의 대표적인 문인이며 예술가인 蘇軾·米芾와 墨緣을 맺었다는 뜻으로, 소식은 김정희를 비롯하여 당시 김정희 주위에서 활동했던 秋史系 閭巷人들에게 광범위하게 수용되어 존송되고 있었다.<sup>45)</sup> 그들은 나막신을 신고 있는 蘇軾의 모습을 그린 <東坡笠屐像>을 서재에 걸어 놓는 것은 물론, 매년 소식의 생일이 되면 기념 모임을 갖고 행사를 치르기도 했다고 한다.

李是應도 김정희 및 추사계 여향인들과 마찬가지로 소식을 추종했던 흔적이 보

45) 秋史系 閭巷人이란 金正喜의 문예취향에 동조하거나 그 영향 아래 활동한 문인 가운데 중인 서리층에 소속되는 이들로써 趙熙龍·李尙迪·柳最鎭·田琦·許鍊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金正喜의 영향하에서 활동한 때문으로 그 취향 및 생활정서가 다른 여향인들과 뚜렷이 구별되기 때문에 秋史系 閭巷人이라는 별도의 명칭으로 일컬어진다.



인다. 이하응이 집권할 당시 운현궁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인물인 金奎洛의 『雲下見聞錄』에 의하면, 이하응은 운현궁에 거처할 때 나막신을 즐겨 신어 ‘楡屐道人’이라고 自號했다고 하는데,<sup>46)</sup> 이는 소식에 대한 존경심이 생활 속에서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소식은 수염을 길렀던 것으로 유명하여 그를 일러 ‘髯蘇’라 하기도 했다고 한다. 김정희 역시 수염을 길렀고 스스로를 ‘髯’이라고 했으며, 이를 사구인으로 사용하기도 했다.<sup>47)</sup> 또한 이하응의 초기작에 보이는 ‘수염 난 수행자’라는 의미의 ‘髯頭陀’ 역시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 ‘髯頭陀’는 김정희로부터 소식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의 사상의 인적 계보를 말해 주는 것으로서 그의 젊은 시절의 사상 경향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 외 소식과 관련된 이하응의 사구인으로는 소식이 王維의 시와 그림에 대해 정의한 ‘詩中有畫 畫中有詩’<sup>48)</sup>이 있고, “胸中成竹”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이는 ‘成竹山房’<sup>49)</sup>도 소식과의 관련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렇듯 이하응은 김정희와 밀접한 인간관계를 유지했으며, 소식을 존승했다는 점에서 김정희와 그 주변에서 활동했던 추사계 여향인들과 비슷한 사상을 공유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書畫에 대한 관심과 지식 중시 淸 문화에 대한 개방적 자세, 寫意를 중시하는 남종문인화적 세계를 추구했다는 점에서도 추사계 여향인들과 학예 경향을 함께 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추사계 문인들은 詩論에서 자신의 性靈, 즉 영혼에 따라 자유로이 詩를 짓고자 하는 性靈論을 표방했는데,<sup>50)</sup> 이하응의 ‘陶冶性靈’이라는 사구인은 이들의 성령론과 관련된 것으로 그들과의 관계를 더욱 분명하게 알려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들 중에서도 특히 詩에서 개성을 강조했던 張之琬(枕雨堂, 1806~1858)이 언급한 “詩者 陶寫性靈”<sup>51)</sup>의 문구를 변형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이하응의 ‘我法’이라는 사구인은

46) “嘗自號曰石坡 平居好着楡屐 故又曰 楡屐道人” 李佑成 編 『雲下見聞錄 外五種』 亞細亞文化社 (1990), 15 쪽

47) 蘇軾에 대한 金正喜의 존경과 私塾에 대한 내용은 유홍준, 『완당평전』1, 학고재 (2002), 91~94 쪽과 『완당평전』2, 486~488 쪽, 500~504 쪽 참조

48) 出典: 蘇軾 題跋「書摩詰藍田煙雨圖」

49) 出典: 蘇軾 「簞簞谷偃竹記」

50) 李佑成, 「金秋史 및 中人層의 性靈論」, 『韓國漢文學研究』 제5집 한국한문학회연구회 (1980-1981), 127~138 쪽

51) 李佑成, 위의 논문, 133 쪽 참조

성령론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崔瑗(생몰년미상)의 “有我” 즉 ‘我的 自覺’을 연상시킨다.<sup>52)</sup>

이렇듯 이하응의 사구인 가운데 추사와 문인들의 詩論과 직접 연관된 사항 뿐 아니라, 책이나 학문에 관련된 문구들이 많이 사용된 점도 바로 北學派로부터 추사와 문인들에게 이어져 온 지식 중시의 정신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그가 실제로 생활 속에서 책을 가까이 했을 것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구인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그의 사구인 가운데 독서나 好學과 관련된 것을 소개하면 ‘卓犖觀群書’, ‘裒烏號不如藏此書’, ‘讀離騷左氏太史公書’, ‘欲藏萬卷異書 終身嘯詠其中’, ‘讀未見書如逢良士 讀已見書如遇故人’, ‘幸我須眉男子 身生於禮義國又能讀書’, ‘爲對讀書人 谿亭自聞香’ 등이다.

이 사구인들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하응은 ‘여러 가지 책을 읽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았으며, ‘많은 책을 소장하고 평생토록 그 속에서 읊조리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蘭을 노래한 대표적 詩文인 屈原의 「離騷」와 중국 고대 歷史書인 『春秋左氏傳』과 『史記』를 중심으로 한 독서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흥미롭다. 이 같은 그의 호학 태도는 일찍부터 김정희에게 그 소양을 인정받았던 것 같다. 젊은 시절 김정희의 문하에서 글씨와 묵란을 배워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그의 예술적 소질에 근거한 것이겠지만, 거기에는 그의 학문적 소양도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李旼應은 김정희의 학문과 예술에 철저하게 경도되어 있었고, 그런 그를 김정희는 ‘압록강 이동에서는 제알 이라고 격려했다. 김정희로부터 격찬을 받았던 이하응이 추구했던 예술취향은 바로 寫意를 강조하는 남종문인화의 세계였다. 이하응의 이러한 예술 경향은 김정희의 예술론 가운데 중심 이론인 詩書畫一致論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시서화일치론에 대해서도 함께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sup>53)</sup> 동양에서는 일찍이 北宋의 文人畫家 蘇軾이 王維의 詩와 그림에 대해 ‘詩中有畫 畫中有詩’라는 평을 함으로써 시와 그림의 일치론을 유발시킨 이래 詩·書·畫가 밀접한 기능을

52) 李佑成, 앞의 논문, 135쪽 참조

53) 金正喜의 ‘詩書畫一致論’에 대해서는 扈承禧의 「秋史의 藝術論」, 『韓國漢文學研究』 제8집, 한국한문학연구회 (1985), 131~151쪽 참조

담당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시서화일치론이 이미 12세기 고려의 문인들에 의해 피력되기는 했으나, 김정희에 이르러서야 구체적인 예술 성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화가의 정신세계를 화폭에 담는 사의적 남종문인화로 표현되었으며, 이하응의 예술세계 역시 동일한 노선을 취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하응의 사구인 가운데 예술창작에 관한 것은 대부분 詩·書·畵와 관련된 것이었다.

그의 사구인 가운데 시·서·화를 아우르는 예술창작에 관한 것으로는 ‘遊戲翰墨’, ‘詩癖’, ‘餘事作詩’, ‘第一功名 只賞詩’, ‘太白後身’, ‘遠溯倪黃畵派’, ‘寫蘭作意’, ‘喜氣寫蘭’, ‘蓄良硯墨筆紙’, ‘戰兢臨硯’ 등이 있다

이들 예술창작에 관한 사구인의 전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그는 평생을 ‘翰墨(詩文과 畵)’ 속에 노닐고 싶어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詩 짓기를 좋아하는 성격’으로 ‘여가에는 주로 시를 짓고 감상하기’를 즐겼으며, 창작에 앞서 좋은 재료들을 비축하고자 했고, 창작단계에서는 겸허하고 ‘조심스럽게 벼루에 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는 ‘멀리倪瓚과 黃公望’ 같은 문인화가의 정신을 본받고자 했고, 구체적으로는 ‘蘭을 그리는 데 뜻을 일으키고’, ‘기쁜 기색’으로 난을 그렸음을 알 수 있다.<sup>54)</sup>

이상에서 학문과 예술에 관한 이하응의 사구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구인의 내용을 통해 볼 때 그는 정치가로서의 일반적 인식과 달리, 책읽기를 좋아하고 예술을 사랑했던 문인예술가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 흥미로웠다.

## 2. 人生觀

李昉應의 詞句印 가운데 人生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로 그는 自然을 벗어나 담담하게 살고자 하는 道家的 삶을 희구했고, 실천적인 면에서는 儒敎的 修己의 덕목을 중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도가적 삶에 관한 것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54) ‘喜氣寫蘭’(기뻐하는 기운으로 난을 그리다)이라는 말은 元의 覺隱이 ‘喜蘭怒竹’(기뻐하는 기운으로 난을 그리고 노한 기운으로 대나무를 그린다)이라는 말에 근거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喜蘭怒竹’은 『芥子園畵傳』 「蘭譜」의 ‘畵蘭淺說’에서 관련 내용을 볼 수 있다[『新譯 芥子園畵傳』 雲林堂 (1987), 284쪽 참조].

&lt;표 2&gt; 詞句印을 통해 본 人生觀 1 (道家的인 것)

	詞句印의 내용	기법·형태	出典	첫 사용시기
自然・ 自然을 벗어난 隱逸의 삶	月落江橫 (달은 지고 강이 가로 놓였다)	白文方印		1878년(59세)
	天然 (자연 그대로의 상태)	白文方印		1879년(60세)
	一條水 (한 조각의 얼음)	朱文橢圓印	宋, 陳彭年	1879년(60세)
	月影華香 (달 그림자 꽃향기)	朱文方印		1879년(60세)
	一湫月 (서늘한 달 하나 (연못 속의 달))	朱文橢圓印		1879년(60세)
	煙霞世界 (연기와 노을로 둘러싸인 세계 산수 자연)	白文方印		1879년(60세)
	乾坤□ (하늘과 땅, 천지, 우주)	朱文方印	易經, 繫辭上	1879년(60세)
	數峰天遠 (두 세 봉우리 위로 하늘이 높다)	朱文方印		1886년(67세)
	松月爲談柄 片石爲聽徒 (소나무와 달을 이야기 거리로 삼고 조각 돌을 청중으로 삼는다)	朱文方印		1888년(69세)
	風奏竹聲 (바람이 대나무 소리를 연주하다)	白文方印		1890년(71세)
	一室秋燈 一庭秋雨 更一聲秋雁 (방에는 가을 등불 뜰에는 가을 비, 그리고 외마디 가을 기러기 소리)	朱文方印		1891년(72세)
	鶯邊按譜 華背音句 (피꼬리 소리 들리는 곁에서 거문고를 뜯자니 꽃마저 그 곡조에 기꺼워하네)	朱文方印		1891년(72세)
	好華看到半開時 (좋은 꽃 반쯤 피었을 때 보러 가노라)	朱文方印	邵雍의 詩: 美酒飲教微醉後 好華看到半開時	1889년(70세)
	梧鑑道人 (오동나무를 감상하는 道人)	白文方印		1874년(55세)
	二梧讀境 (두 그루의 오동나무가 있는 책 읽는 서재)	朱文方印		1878년(59세)경
	梅花境 (매화의 터전)	白文方印		1878년(59세)경
	閒鋤明明 種梅華 (한가한 호미를 부지런히 놀려 매화를 심는다)	朱文方印		1891년(72세)
	三十已梅花書屋 (삼십만 송이 매화가 핀 書屋)	白文方印		1891년(72세)
	二琴一鶴 (거문고 둘에 학 한 마리)	白文方印	一琴一鶴 宋史, 趙抃傳	1883년(64세)
담담하며 소박하고 平安한 삶	吾亦澹蕩人 (나 또한 마음 편하고 한가한 사람이다)	白文方印	唐, 李白 「古風」	1851년(32세)
	運水搬柴 飽食安眠 (물과 땀감을 나르고 배부르게 먹고 편안하게 잔다)	朱文方印	飽食安眠; 白樂天의 詩 「快活」	1874년(55세)
	和樂且湛 (화락(함께 모여 사이 좋게 즐깁니다) 하고도 편안하다)	白文方印	詩經	1875년(56세)경
	老安堂 (늙어서 지내기에 편안한 집)	白文方印・朱文方印		1877년(58세)경 1878년(59세)경
	心欲小 (마음은 작게 하고자 한다)	朱文方印	淮南子; 心欲小, 志欲大	1877년(58세)경
	晚景太平 (늦그막이 태평하다)	朱文方印		1877년(58세)경
	一室之內有以自娛 (하나의 방안에 스스로 즐길 만한 것이 있다)	朱文方印		1888년(69세)
	梅閣留春 荷亭銷夏 自娛而已 (매화 핀 누각에 봄을 머무르게 하고 연꽃 핀 정자에서 더위를 없애니 스스로 즐거워 할 뿐이다)	白文方印		1890년(71세)
	澹澹流水意 (담담하게 물 흐르는 듯한 마음)	朱文方印	澹澹- 魏武帝 碣石篇	1891년(72세)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하응의 그림에서 가장 자주 사용된 詞句印은 학문이나 독서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사구인의 내용을 분류해 본 결과, 양적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自然에 관한 것이었다. 예를 들면 ‘月落江橫’, ‘月影華香’, ‘煙霞世界’, ‘松月爲談柄 片石爲聽徒’, ‘好華看到半開時’ 등과 같은 것이다.

그 내용은 꽃향기, 달그림자 등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과 ‘소나무와 달을 이야기 거리로 삼고, 조각돌을 청중으로 삼아 자연에 동화되어 살고자 하는 바람을 담은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시에 그는 담담하고 소박한 道家的 삶을 추구했던 것으로 짐작되는데 그의 詞句印 가운데, ‘吾亦澹蕩人’, ‘運水搬柴 飽食安眠’, ‘一室之內有以自娛’, ‘澹澹流水意’ 등과 같은 것이 그러한 심경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運水搬柴 飽食安眠’은 1874년(54세) 直谷山房에서 제작한 그림에 주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고, ‘一室之內有以自娛’나 ‘澹澹流水意’ 등은 70세 이후의 그림에 애용되었다. 이러한 내용의 사구인은 정권을 향한 집착과 열정 이면에 자리한, 자연에 동화되어 평담하게 살고자 하는 그의 인생관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이하응의 사구인 가운데는 이 같은 도가적 삶을 추구하는 내용이 있는 한편, 修己의 자세를 중시하며, 道德이나 君子的 志操로 요약되는 유교적 덕목을 강조하는 내용도 있어 그의 사상의 다양한 면모를 짐작하게 한다. 또한 이러한 사상적 경향과 함께 그의 사구인 가운데는 富貴·長壽와 같은 求福的 기원을 담은 吉祥句도 있어 흥미롭다. 유교적 덕목과 구복적 吉祥의 사구인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이들 가운데 ‘修成淑德 施及子孫’, ‘修身齊家’, ‘爲善最樂’ 등에서는 그의 修己의 자세를 엿볼 수 있고, ‘道義無寶’, ‘德普道彌隆’, ‘德音不瑕’, ‘久而敬之’ 같은 문구에서는 道義나 德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원래 儒教는 修己와 治人을 本旨로 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의 詞句印을 볼 때 그는 修己나 道義 같은 유교적 덕목을 治人의 전제 조건으로 이해하고 치인의 자세를 갖추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실제로 이하응은 집권 후 왕실자손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1870년에 『敎學定例』라는 왕실교육 지침서를 만들고 그 서문에서, “禮는 배움에 들어가는 것보다

&lt;표 3&gt; 詞句印을 통해 본 人生觀 2 (儒敎的 덕목 · 求福의 吉祥)

	詞句印의 내용	기법 · 형태	出典	첫 사용시기
儒敎的 덕목 :  修己, 道, 德, 志操	道義無寶 (道義 만한 보배는 없다. 도의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다)	白文方印		1875년(56세)
	久而敬之 (오래되어도 변치 않고 공경함)	白文方印	論語; 公治長	1879년(60세)
	德普道彌隆 (덕이 넓어지면 도는 더욱 높아진다)	白文方印		1886년(67세)
	大風寒松, 中流低柱 (큰바람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寒松과 항해 중류에 우뚝한 低柱石)	朱文方印		1887년(68세)
	四海蘭盟 (온 세상이 난으로 맺은 벗과 같다)	朱文方印		1887년(68세)
	與善人居, 如入芝蘭之室 (善인과 더불어 거처하는 것은 芝蘭이 있는 방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朱文方印	孔子家語	1897년(78세)
	芝蘭君子性 (芝蘭은 군자의 성품이다)	白文方印		1891년(72세)
	修成淑德, 施及子孫 (맑은 덕을 닦고 이루어서 자손에게 미치게 하리라)	白文方印	淑德-漢書, 王莽傳	1887년(68세)
	修身齊家 (몸을 닦고 가정을 가지런히 하다)	朱文方印	大學	1888년(69세)
	德音不瑕 (아름다운 명성에 하자가 없다)	白文方印	詩經; 爾風	1891년(72세)
求福的 吉祥 :  富貴, 長壽, 福	爲善最樂 (선행을 하는 것이 가장 즐겁다)	朱文方印	後漢書; 東平 憲王蒼傳	1891년(72세)
	平祿永昌 (평온한 福祿이 영원히 昌盛하기를 기원함)	朱文方印		1875년(56세)
	富貴壽昌 (부귀하고 오래 살고 번창하기를 기원함)	白文方印		1875년(56세)경
	石壽 (돌과 같은 수명)	白文方印		1878년(59세)경
	萬壽無疆 (장수를 기원함)	白文方印 · 朱文橢圓印		朱文橢圓印; 1887년(68세)
	石壽卮年 (돌의 수명은 만년이다 장수를 기원함)	朱文方印		1879년(60세)
	闔福之源 (복을 여는 근원)	白文方印		1891년(72세)
	大吉祥 (크게 상스럽다(크게 길한 조짐))	朱文方印		1879년(60세)

귀한 것이 없고, 배움은 스승을 용숭히 하는 것보다 우선할 것이 없다 스승이 존재하는 바에는 예가 없을 수 없으니, 이것이 바로 師傅相見禮를 만드는 까닭이다.”<sup>55)</sup>라고 전제했다. 이 규정은 교육의 내용보다 스승에 대한 예의의 실천을 익히게 하려는 목적이 우선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지배층의 자격요건으로서 修己를 요

55) 『敎學定例』 대원군의 서문.

鄭玉子, 「興宣 大院君의 王室敎育 強化」, 『韓國史研究』 99 · 100 (1997. 12), 331 쪽에서 재인용

구하던 조선왕조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이하응의 입장에서 지배층 내에서도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왕족의 修身은 필연적인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외에 ‘大風寒松 中流砥柱’, ‘四海蘭盟’, ‘與善人居 如入芝蘭之室’, ‘芝蘭君子性’ 등의 사구인은 君子의 지조나 人格美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그가 예술과 삶을 통해서 동시에 추구하고자 했던 정신적 경지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자연을 벗하여 담담하게 살고자 했던 이하응의 도가적 사상 내용과 함께 수기의 자세를 갖추고자 했던 유교적 덕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같은 다양한 사상 경향은 문인예술가이자 왕공 사대부로서의 그의 다면적 입지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하응의 사구인 가운데 그가 도가적이거나 유교적 사상을 추구한 이면에 求福의인 면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있어 흥미롭다. 예를 들면 ‘富貴壽昌’, ‘平祿永昌’, ‘萬壽無疆’, ‘石壽延年’ 등이 그것이다. 이는 부귀와 장수를 희구하는 자연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하응은 도가적이고 은일적인 삶의 태도를 바탕으로 유교적 덕목을 갖추고자 했으며, 동시에 구복적 태도도 지니는 등 폭넓은 사상 경향을 지닌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IV. 맺음말

이하응의 생애에 있어서 예술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그는 정치적 야심 때문에 집권과 하야를 반복했으나, 고난의 시기를 맞을 때마다 墨蘭畵 제작에 몰두했다. 추측컨대 그에게 있어서 묵란화는 修己의 방편이었고, 동시에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는 수단이었다는 듯하다.

예술가로서의 그의 생애에서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정치적 시련기를 거치면서 개성적 墨蘭畵風을 형성해 간 과정이다. 이는 스승 金正喜가 제주도 유배생활을 통해 秋史體를 창안했던 같이 고난을 예술로 승화시킨 정신력의 소산으로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한편 그는 정권에서 물러나 은거하던 기간에 맞게 된 回甲

(1879년)이나 回婚(1891년)을 작품 제작의 계기로 삼은 듯 이 시기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볼 때, 그의 묵란화 창작과정과 畫風의 변화요인은 정치적 입지의 변동과 自然人으로서의 통과 의례에 따른 심리적 변화에 의한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하응의 경우 文集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의 그림에 보이는 詞句印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학예 사상과 인생관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사구인의 내용을 통해 볼 때, 그는 강인한 정치가로서의 일반적 인식과 달리 책읽기를 좋아하고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는 감성적 인물이었고, 이 같은 감성적 사유의 기반은 김정희 사상의 영향으로 파악된다. 특히 書畫에 대한 관심과 지식 중시 그리고 南宗文人畫의 세계를 추구했던 점은 김정희와 추사파 문인들의 학예 지향적 태도와 일치하여 그러한 추정을 뒷받침 해준다. 또한 그는 작가의 정신성을 강조한 性靈論과 詩書畫一致論으로 대표되는 김정희의 예술론에 힘입어 격조 높은 寫意的 세계를 구축하고자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人生觀에 있어서는 自然에 동화되어 平澹하게 살고자 하는 隱逸的 태도와 儒敎的 덕목을 실천하고자 하는 현실적 경향과 함께 富貴長壽를 희구하는 求福的 측면까지 내포하고 있어 그의 폭넓고 다양한 사상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예술가로서의 이하응의 삶과 사상에 대한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정치가로서만 부각되어 극단적으로 평가되어 온 기존의 인식을 어느 정도 수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史料] — 文集, 日記, 書牘 기타 個人記錄

李昰應, 『大院君書牘集』(國史編纂委員會本)

\_\_\_\_\_, 『大院君天津往還日記』(藏書閣本)

『興宣大院君略傳』(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藏 2- 879)

『雲下見聞錄 外五種』 西壁外史海外蒐佚本 서울: 亞細亞文化社, 1990.

金正喜, 민족문화추진회 편, 『국역 완당전집』 1~4 서울: 솔 출판사, 1997.



許維, 김영호 편역, 『小癡實錄』 서울: 서문당, 1976.

黃玟, 金濬 譯, 『完譯 梅泉野錄』 서울: 敎文社, 1994.

成大慶 脫草 및 해제, 「大院君의 保定府談草 -吳汝綸 對談記-」 『郷土 서울』 40, 1982.

### [辭典, 事典類]

金英淑 편저, 『한국복식문화사전』 서울: 미술문화, 199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 [單行本]

具滋均, 『朝鮮平民文學史』 서울: 民學社, 1974.

菊池謙讓, 『李太公及閔后合傳』 서울: 성진문화사, 1973.

權錫奉, 『清末對朝鮮政策史研究』 서울: 일조각, 1986.

柳時源, 『풍운의 한말 역사산책』 서울: 한국문원, 1996.

吳世昌 編, 『權域印戴』 서울: 국회도서관, 1968.

俞弘濬, 『완당평전』 1·2·3 서울: 학고재, 2002.

李瑄根, 『韓國最近世史研究』 서울: 휘문출판사, 1985.

張師助, 『黎明의 東西音樂』 서울: 寶晉齋, 1974.

鄭玉子, 『朝鮮後期 朝鮮中華思想 研究』 서울: 일지사, 1998.

池斗煥, 『韓國思想史』 서울: 역사문화, 1999.

韓永愚, 『朝鮮後期史學史研究』 서울: 일지사, 1989.

\_\_\_\_\_, 『다시 찾는 우리역사』 서울: 경세원, 1997.

\_\_\_\_\_, 『명성황후와 대한제국』 서울: 효형 출판, 2001.

### [論文]

고재욱, 「金正喜의 實學思想과 清代 考證學」 『泰東古典研究』 10, 1993, 737~748 쪽.

金洋東, 「韓國 印章의 歷史」 『韓國의 印章』, 국립민속박물관 1987, 188~203 쪽

김영호, 「開化思想과 斥邪論」 『한국사』 16, 1975.

金膺顯, 「印章이란 무엇인가?」 『韓國의 印章』, 국립민속박물관 1987, 185~187 쪽

金義煥해설, 「새로 발견된 『興宣大院君略傳』」 『史學研究』 제9 호, 1987. 6.

- 金正起, 「大院君拉致와 反清意識의 形成(1882-1894)」 『韓國史論』 19 집, 1988.
- \_\_\_\_\_, 「흥선대원군(1820-1898)의 생애와 정책」 『동북아』 3집, 1996, 232~262쪽.
- 金貞淑, 「石坡 李昉應의 墨蘭畫 研究」 『韓國學大學院論文集』 12 집, 1997, 189~246쪽.
- \_\_\_\_\_, 「石坡 李昉應(1820-1898) 墨蘭畫風의 형성」 『美術史學研究』 233 · 234 호, 2002.8, 233~266쪽.
- 柳永益, 「興宣大院君」 『韓國史市民講座』 13, 1993, 86~114쪽.
- 成大慶, 「大院君 정권 성격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4.
- 沈允景, 「大院君 被拉과 朝清關係」,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安外順, 「大院君執政期(1864-1873) 權力構造에 관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6.
- 延甲洙, 「大院君執政의 성격과 권력구조의 변화」,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李佑成, 「金秋史 및 中人層의 性靈論」 『韓國漢文學研究』 5, 1981, 127~138쪽.
- 鄭玉子, 「詩社를 통해서 본 朝鮮末期 中人層」 『韓治勳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1981, 489~524 쪽
- \_\_\_\_\_, 「興宣 大院君의 王室教育 強化」 『韓國史 研究』 99 · 100, 1997, 329~345 쪽
- 鄭震英, 「19세기 후반 嶺南儒林의 정치적 동향 萬人疏를 중심으로」 『韓末 嶺南 儒學界의 동향』, 1998.
- 조성윤, 「개항직후 대원군과의 쿠데타 시도 이재선 사건을 중심으로」 『韓國近代政治史研究』, 1985.
- 崔炳鈺, 「大院君의 下野에 대하여」 『조항래교수화갑기념 한국사학논총』, 1992.
- 扈承喜, 「秋史의 藝術觀」 『한국한문학회연구』 8, 1985, 131~151쪽.

● 투고일: 2003. 4. 25

● 심사완료일: 2003. 6. 17

● 주제어(key word): 흥선대원군(Hüngsön Taewön'gun), 김정희(Kim Chöng-hüi)